

벤처기업의 부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훈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홍재범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부실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을 받은 벤처기업 중 최근 3개년 간 보증사고가 발생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부실사유를 분석하였다. 부실사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사고기업의 보증사고발생보고서를 토대로 부실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증사고발생보고서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기보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그 부실이 이르게 된 원인이나 향후 제기 가능성을 파악한 보고서이다.

분석결과, 374건의 부실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벤처기업들이 부실화되어 사업실패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로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79건),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취소(54건), 매출채권회수부진(31건),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24건), 국내 또는 해외 원자재의 가격 상승(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부실요인으로 앞에서 주기로 표시한 주요 납품처와 관련된 Risk가 있으며 그 외에 일본원전 사고·개성공단 가동중단·소송 등 돌발 악재 발생, 기술개발사업화의 지연, 비효율적 관리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등이 있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부실요인, 기술보증기금, 사례분석

1. 서론

정부의 꾸준한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2016년 6월말 현재 벤처기업은 31,766개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벤처기업의 육성이 곧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강도 높은 벤처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이 부실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실패경험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 후유증을 생각하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부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부실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실을 예측하는 연구가 많다. 그 이유는 자료수집도 용이하고 그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언제든 내가 관심이 있는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재무실적 악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주는 연구가 사례분석이다. 부실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경영자를 면담하여 부실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

서 재무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비해서 그 수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부실에 처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하고 경영자를 만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에 한계를 갖게 된다.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소수의 부실화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요인을 기업가 특성, 전략, 자원, 경영관리, 환경 등의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 범주 내에 세부 실패요인을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이장우·이성훈, 2004; 장수덕, 2005; 정성민 외, 2008; 권기환·최종인, 2015)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라 한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확장한 것이다.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보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보 거래 벤처기업 중 최근 3년 (2013.4~2016.3) 동안 보증사고가 발생한 210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기업은 기보에서 10억 원 이상 보증을 받았으며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보증사고발생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4개의 군으로 분류한 뒤 개별 기업별로 작성된 보증사고발생보고서를

* 제1저자, 부경대학교, lhiak@hanmail.net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jbhong07@gmail.com

· 투고일: 2017-01-09

· 수정일: 2017-02-20

· 게재확정일: 2017-02-25

토대로 부실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실로 이어진 성장성 둔화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찾았다.

II. 벤처기업 부실요인 관련 선행연구

장수덕(2003)은 1997년에 벤처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250개의 회원사 중에서 87개사(중 실패 기업 16개 포함)를 표본기업으로 실패한 벤처기업과 일반적 벤처기업, 성공한 벤처기업에 대해 기업가 특성, 창업과정, 경영특성, 전략, 자원, 환경 측면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가우위전략, 전공과 제품과의 관련성 그리고 마케팅 차별화전략이 벤처기업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이장우·이성훈(2004)은 1997년에 벤처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250개의 회원사 중에서 벤처기업 104개사(실패 28개)를 표본으로 하여 실패기업과 그 외 기업간에 창업자특성, 기업의 연령, 경쟁전략, 자원과 능력, 환경특성 면에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창업 시 자기자금 비중, 창업자의 전공 관련성과 시장세분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장수덕(2005)은 벤처기업 중 실패한 4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와 필요시 대표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다중사례연구방법으로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독단적인 성격과 경영자의 지나친 욕심이 벤처기업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능동적인 대처능력의 부족과 예상치 못한 환경의 충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방어메커니즘의 부족도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수덕 외(2008)는 1997년에 생존해 있는 벤처기업 189개사를 대상으로 2000년에도 생존해 있는 지를 파악하여 이중 48개사가 사업을 중단한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령의존관점과 자원기반관점에서 실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실패는 경영지식이나 자금동원능력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며 초기 창업단계를 벗어난 벤처기업들의 실패는 경쟁적 산업환

경의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민 외(2008)는 실패한 벤처기업 1개사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중요한 세부 실패요인으로 CEO의 독단적 경영, 비관련사업 다각화, 수요정체, 무리한 R&D 투자, 인력 부족,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이장우·이성훈(2009)은 1999년에 중소기업청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2,052개 벤처기업 중 계속 사업 영위하는 기업들과 2003년 국세청 자료로 폐업사실이 확인된 502개의 실패한 기업들 간의 창업자 특성, 사업전략, 자원과 능력, 환경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성장단계별로 특성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패한 기업들은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기술차별화 전략에 역점을 두지 않으며 부족자원 조달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가 부족하였다. 성장단계별로는 초기에는 창업자의 위기감수성향과 자금조달능력, 성장해가면서 외부와의 협력관계와 지속적 연구개발이 중요해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수덕(2010)은 1997년과 2000년에 실시한 2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벤처기업 76개사를 대상으로 2008년 말 기준 이들 기업의 생존과 실패를 재조사하여 파악된 실패기업 41개사와 생존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패기업과 생존기업 간에 전략, 환경, 조직구조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으며 변화유형별로 그 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실패는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의 경쟁강도가 심화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패는 적절한 조직구조의 선택과 조직체계의 구축 등 조직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기환·최종인(2015)은 실패한 벤처기업 1개사를 선정, 인터뷰와 기업 내부 자료를 토대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실패요인을 기업가 특성, 경영관리, 전략, 자원 확보, 환경에 기술을 추가하여 살펴 보았는데 리더십의 부재(의사소통능력 부족), 독단적 의사결정, 업무전문성의 부족,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능력 부족, 부족자원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의 부족과 기술 부문에서는 기술의 독특성 상실과 확장성 부족을 실패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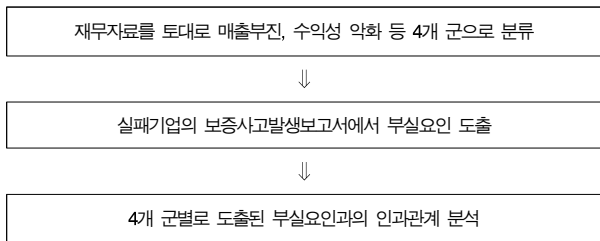
저자	대상	분석방법	실패요인
장수덕 (2003)	1997년 벤처기업협회 등록 87개사(중 실패 기업 16개 포함)	차이분석 판별분석	원가우위전략, 전공과 제품과의 관련성 그리고 마케팅 차별화전략.
이장우·이성훈 (2004)	1997년 벤처기업협회 등록 104개사(중 실패 기업 28개 포함)	차이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창업 시 자기자금 비중, 창업자의 전공 관련성과 시장세분화
장수덕 (2005)	1997년 생존 벤처기업 189개사 중 실패한 4개사	다중사례연구	경영자의 독단적인 성격과 경영자의 지나친 욕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능동적인 대처능력의 부족과 예상치 못한 환경의 충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방어메커니즘의 부족
장수덕 외 (2008)	실패한 48개 벤처기업	회귀분석	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실패는 경영지식이나 자금동원능력의 부족, 초기 창업단계를 벗어난 벤처기업들의 실패는 경쟁적 산업환경의 변화가 원인
정성민 외 (2008)	실패한 벤처기업 1개사	단일사례연구	CEO중심경영, 비관련사업 다각화, 수요정체, 무리한 R&D 투자, 인력 부족,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이장우·이성훈 (2009)	1999년 벤처인증된 2,052개 벤처기업 중 계속사업영위 기업과 2003년 폐업사실이 확인된 502개	로지스틱회귀분석	창업자의 교육수준, 기술차별화 전략, 부족자원 조달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부족

장수덕 (2010)	실패기업 41개사와 생존기업 35개사	차이분석	환경의 변화, 적절한 조직구조의 선택과 조직체계의 구축
권기환 최종인 (2015)	실패한 벤처기업 1개사	단일사례연구	리더십의 부재(의사소통능력 부족), 독단적 의사결정, 업무전문성의 부족,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능력 부족, 부족자원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의 부족, 기술의 독특성 상실과 확장성 부족

III. 연구방법론

3.1 분석방법

기업이 사업실패에 이르기까지는 하나의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보의 보증거래기업 중 최근 3년(2013.4월~2016.3월) 동안 보증사고 발생 후 정상화되지 않고 사업 실패한 벤처기업 210개의 전기·당기 재무자료를 토대로 전기대비 당기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매출부진군’,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을 ‘수익성 악화 군’, 매출부진과 수익성악화가 중복 발생한 기업을 ‘매출부진·수익성악화 군’, 그 외 기업을 ‘기타 사유 군’ 등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실패기업별로 작성된 보증사고발생보고서에서 도출된 부실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1> 분석방법

3.2 분석대상

기보에서 10억 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은 벤처기업 중 최근 3년(2013.4~2016.3) 동안 보증사고기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사고 처리 후 정상화되지 않고 사업 실패한 417개 기업 중 전·당기 재무자료가 기보 DB에 저장되어 있고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보증사고발생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증사고라는 것은 보증부대출의 원금·이자 약정기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명시적 사유발생 등 그 외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을 때 발생한다. 보증사고발생보고서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후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등 실태 조사 후 기업체 개요와 보증내용, 사고원인 등이 포함된 사고내용, 회사 가동실태, 향후 전망 등을 작성한 보고서이다.

사업실패 기업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많았으며 기업규모는 총자산이 50억~100억 사이와 100억~300억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50억~300억 사이, 부채비율은 200~500%가 많았으며 기술평가등급은 BBB가 가장 많았다. 주주 구성은 대표자 등 개인 또는 관계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그 외 코스피 기업 1개, 코스닥 기업 6개, 코넥스 기업 1개, 창투사 등 기관투자자 투자 기업이 27개이다.

<표 2> 연구대상 기업 개요

구분	기업 분포					계
	3년 미만	3~5년	5~7년	7~10년	10년 이상	
업력	12	19	31	41	107	210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300억	300억~500억	500억 이상	계
총자산	20	85	83	17	5	210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300억	300억~500억	500억 이상	계
매출액	55	66	73	6	10	210
	100% 미만	100%~200%	200%~500%	500%~1,000%	1,000% 이상	계
부채비율	5	27	79	29	70	210
	AA	A	BBB	BB	B	계
기술평가등급	12	69	80	36	13	210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창투사 등 투자기업	일반	계
주주 구성	1	6	1	27	175	210

IV. 분석결과

4.1 분류결과

전기 대비 당기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매출부진과 당기

순손실이 중복 발생한 ‘매출부진·수익성악화 군’은 54개 기업이, 매출부진이 발생한 ‘매출부진 군’은 22개 기업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수익성 악화 군’은 58개 기업이,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해당되지 않은 그 외의 ‘기타 사유 군’은 76개 기업이 각각 포함되었다. 분류결과, 가장 흥미로운 유형은 ‘기

타 사유 군'이다. '기타 사유 군'은 재무정보만으로 부실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표 3> 재무자료로 본 실패기업 분류

구분		수익성		
		당기손실	그 외	계
성장성	매출 20% 이상 감소	매출부진·수익성악화 54	매출부진 22	76
	그 외	수익성악화 58	기타 76	134
	계	112	98	210

4.2 부실사유

본 연구에서는 부실요인을 24개로 정의하였으며 <표 4>와 같다. 여기서 24개 요인은 '매출부진 연관요인'에 8개,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에 6개, '기타 요인'에 10개이다. 24개 요인 중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요인이 10개이다. 즉,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새롭게 도출된 요인은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취소",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 "일본원전 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소송 등 돌발 악재", "기술개발사업화의 지연 등 기술개발 실패", "경영진의 내분·부정부패", "중국 또는 후발주자의 저가 공세"이며 그밖에 3건 이하로 도출된 "세무조사 추정금 발생", "비효율적 관리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사업장 준공 지연", "코스닥·코넥스 기업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이 있다.

분석결과, 벤처기업들이 부실화된 가장 큰 이유로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 (79건),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취소 (54건), 매출채권회수부진 (31건),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 (24건), 국내 또는 해외 원자재의 가격 상승 (21건) 등의 순이다. 매출부진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에 따른 수주물량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부실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수익성악화의 경우에는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가격인하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과 원자재가격의 인상이 수익성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요인의 경우 매출채권회수부진이나 부실채권의 발생과 같이 현금흐름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시설투자, 기술투자, 사업다각화와 같은 투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부실의 요인이었다.

54개 기업이 해당된 '매출부진·수익성악화 군'의 기업으로부터 도출된 106건의 부실요인 중에서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72건,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이 15건, 기타 요인이 19건이다. 기업

당 평균 2건에 가까운 부실요인이 중첩 발생되었으며 매출부진과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이 전체의 83% (72+15/1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엡씨테크놀러지는 주요 납품처와의 마찰로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3년간의 과도한 연구개발비 (6,485백만원) 지출로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어 사업실패에 이르게 된 것이며 (주)루미시스는 관련 산업 (LED 조명시장) 경기 침체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이자비용 등 계속적인 고정비 지출로 수익성도 악화됨에 따라 부실화되었다.

22개 기업이 해당된 '매출부진 군'의 기업으로부터 도출된 39건의 부실요인 중에서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29건,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이 2건, 기타 요인이 8건이다. 기업 당 평균 1.8건에 가까운 부실요인이 중첩 발생되었으며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전체의 75% (29/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인코어텍은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으로 발주물량이 축소되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이다.

58개 기업이 해당된 '수익성악화 군'의 기업으로부터 도출된 111건의 부실요인 중에서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46건,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이 36건, 기타 요인이 29건으로 나타났다. 기업 당 평균 1.9건의 부실요인이 중첩 발생되었으며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46건 발생하게 된 것은 당기매출액이 20% 미만 감소하였거나 당기 결산상으로는 매출부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기 결산 이후인 사고발생 당해 연도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에서 도출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연관요인은 전체의 33%(36/111) 정도이나 수익성악화 연관요인 전체 발생 건수를 놓고 보면 4개의 군 중에서 가장 높은 50% (36/72)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주)위다스는 수출업체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되어 채산성 악화로 거액의 적자 (177억원)를 내면서 사업실패하게 되었다.

매출부진이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기타사유 군'기업은 76개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118건의 부실요인 중에서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54건,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이 19건, 기타 요인이 45건으로 나타났다. 기업 당 평균 1.5건의 부실요인이 중첩 발생되었으며 매출부진 연관요인이 54건 발생한 것은 '수익성악화 군' 기업에서의 사유와 동일하며 수익성악화 연관요인이 19건 발생한 것은 '매출부진 군'에서 발생한 2건과 함께 당기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기대비 당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부실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요인은 38% (45/118) 정도이나 기타요인 전체 발생 건수를 놓고 보면 4개의 군 중에서 가장 높은 45% (45/101) 정도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하이테크시스템(주)는 신사업으로 투자한 에어로봇 (드론) 사업이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도 사업화가 지연됨에 따라 부실화되었고 (주)디엠케이이는 부실채권 발생과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추정세액 (20억) 등으로 부실화되었다.

<표 4> 군별 부실요인 분류 결과

구분	부실요인	군별 발생건수					
		계 (210개)	매출부진 (22개)	수익성악화 (58개)	기타 (76개)	매출부진· 수익성악화 (54개)	
매출부진 연관요인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		79	8	21	20	30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 취소(N)	√	54	5	14	13	22
	신규 거래처 발굴 마케팅 실패		19	5	3	3	8
	과당경쟁, 대기업의 시장진입		17	2	4	7	4
	일본원전 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소송 등 돌발 악재	√	11	2	2	4	3
	시장수요 감소		9	3	1	2	3
	기술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 저하		7	4	1	-	2
	중국 또는 후발주자의 저가 공세	√	5	-	-	5	-
소계		201	29	46	54	72	
수익성악화 연관요인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	√	24	-	12	9	3
	국내(18) 또는 해외 원자재(3)의 가격 상승		21	-	11	5	5
	차입금 과다로 이자비용의 큰 폭 증가		15	2	7	3	3
	환차손 발생		5	-	3	1	1
	기술개발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		5	-	2	1	2
	비효율적 관리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	2	-	1	-	1
	소계		72	2	36	19	15
기타 요인	매출채권회수부진		31	3	7	14	7
	부실채권 발생		17	1	2	8	6
	과잉 또는 부 적기 시설투자		12	1	6	4	1
	기술개발사업화의 지연 등 기술개발 실패	√	10	-	5	4	1
	사업다각화 업종전환 실패		9	2	2	3	2
	관계회사도산에 따른 연쇄도산		9	1	2	4	2
	경영진의 내분·부정부패	√	6	-	3	3	-
	세무조사 추징금 발생	√	3	-	1	2	-
	사업장 준공 지연	√	2	-	1	1	-
	코스닥, 코넥스 기업으로 상장 폐지사유발생	√	2	-	-	2	-
	소계		101	8	29	45	19
합계		374	39	111	118	106	

V. 결론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10억 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은 벤처기업 중 최근 3년 (2013.4~2016.3) 동안 보증사고기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사고 처리 후 정상화되지 않고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실제 분석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된 보증사고발생보고서를 중심으로 210개 기업의 부실사유를 분석하였다. 이어 재무자료를 토대로 전기대비 당기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매출부진 군’,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을 ‘수익성 악화 군’, 매출부진과 수익성악화가 중복 발생한 기업을 ‘매출부진·수익성악화 군’, 그 외 기업을 ‘기타 사유 군’ 등 4개 군으로 분류하여 부실사유를 분석하였다. ‘매출부진·수익성악화 군’은 54개, ‘매출부진 군’은 22개, ‘수익성 악화 군’은 58개, ‘기타 사유 군’은 76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기타 사유 군’에 해당하는 76개 기업은 재무정보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실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요인을 24개로 정의하였으며 이중 10가지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는 부실요인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취소”,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 “일본원전 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소송 등 돌발 악재”, “기술개발사업화의 지연 등 기술개발 실패”, “경영진의 내분·부정부패”, “중국 또는 후발주자의 저가 공세” 등이다.

분석결과, 벤처기업들이 부실화된 가장 큰 이유로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으로 수주 감소·취소”, “매출채권회수부진”,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 “국내 또는 해외 원자재의 가격 상승” 순이다. 매출부진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 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주요 납품처의 계획변경, 도산 등에 따른 수주물량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부실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수익성악화의 경우에는 가격경쟁, 주요 납품처의 가격인하요구 등에 따른 제품가격 동결·하락과 원자재가격의 인상이 수익성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요인의 경우 매출채권회수부진이나 부실채권의 발생과 같이 현금흐름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시설투자, 기술투자, 사업다각화와 같은 투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부실의 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거래가 없거나 보증금액 10억 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사업 실패한 210개 벤처기업의 다양한 실패 사례를 통해 벤처기업의 부실사유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10 가지의 부실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REFERENCE

- 권기환·최종인(2015), 기술벤처의 실패요인 분석: 연구소 창업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27-37.
- 이장우·이성훈(2004),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12, 229-274.
- 이장우·이성훈(2009), 벤처기업의 실패원인: 성장단계별 분석, *중소기업연구* 31(3), 1-17.
- 장수덕(2003),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 차이, *벤처경영연구* 6(2), 101-125.
- 장수덕(2005),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 *경영연구* 20(2), 21-46.
- 장수덕(2010), 벤처기업 실패의 동태적 과정: 실패의 유형, 과정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한 종단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3(1), 140-159.
- 장수덕·Christopher·이상철(2008), 벤처기업의 실패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연령의존관점과 자원기반관점의 통합적 접근, *벤처경영연구* 11(2), 41-63.
- 정성민·조성도·김경은·문연희(2008), 국내 지방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벤처경영연구* 11(4), 91-113.
- Chang, S. D.(2003), A Comparative Study of Succeeded and Failed Venture Firm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6(2), 101-125.
- Chang, S. D.(2005), Characteristics of Failed Venture Companies: A Case Stud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0(2), 21-46.
- Chang, S. D.(2010), The Failure of Venture Firm: a Longitudinal Study of Failed Firms Taxonomy, Failing Process, and Difference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3(1), 140-159.
- Chang, S. D., Scotte, C. & Lee, S. S.(2008), Failure of High-Tech Venture Firms: Integrating Age-Dependence and Resources-Based Perspectiv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1(2), 41-63.
- Jeong, S. M., Cho, S. D., Kim, K. E. & Moon, U. H.(2008),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Failure Factors of a Korean Local Venture Company,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1(4), 91-113.
- Kwon, K. H. & Choi, J. I.(2015), The Analysis of Failure Causes on Technology Venture: A Start-up cas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27-37.
- Lee, J. W. & Lee, S. H.(2004), Failure Factors of High-tech Ventures: an Empirical Study,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2, 229-274.
- Lee, J. W. & Lee, S. H.(2009), Reasons of Failure According to Stages of New Venture Growth,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1(3), 1-17.

Probe Study on the Failure Factors of Venture Companies

Lee, Hoon*
Hong, Jae-Bum**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ilure factors of venture companies. We analyze 210 troubled venture companies, all of which have been under guarantee from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over the last three years. Methods of analysis for failure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we categorize the failure factors into the four different types based on growth and profitability indicato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argeted venture companies. Then we analyzed the failure factors of the subject companies based on the troubled guarantee reports made by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If a venture company under its guarantee program falls into insolvency,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make the troubled guarantee report to find out the failure factors and evaluate the recovery potentials.

We identify 374 failure factors of venture companies through the analysis. The most prominent among them are deteriorating of business environments (79 factors) and decreasing or withdrawing orders from major suppliers (54 factors) due to bankruptcies or change in business plans. They are followed by slowing collection of accounts receivable (31 factors), dropping or frozen product price (24 factors) due to intensifying competition and escalating pressures from major suppliers, rising raw material costs both at home and abroad (21 factors). In addition, the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Japan,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subsequent lawsuits, delay i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high cost-low efficiency management structure, etc., are also revealed as new factors causing trouble for venture companies.

Keywords: Venture Companies, Failure Factors,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Case Analysis

* First Author, PhD Stud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